



호스피스 완화의료제도의 정착과 확산을 위한 대응전략

허 대 석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How to build successful hospice-palliative care systems in Korea

Dae Seog Heo, MD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Although Korea was the first country to provide hospice services in Asia, in 1965, a hospice-palliative care system has not yet been firmly established. Because of controversies surrounding end-of-life decision-making, the passage of the Hospice-Palliative Care and End-of-Life Decision Act was delayed in the National Assembly. It will finally be implemented in August 2017. For this new legislation to be successful, regulatory support from the government is essential, because there are many pitfalls in the law. In addition, a cultural movement towards 'death with dignity' is necessary, and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ystem should support the cost of providing adequate care to terminal patients.

Key Words: Hospices; Palliative; Care; Terminal; End-of-life

서론

생로병사로 대표되는 인생의 중요한 일들이 과거 가정에서 이루어졌으나, 지금은 대부분 병원이라는 환경에서 의료 행위의 한 부분이 되었다. 이 중 임종을 어떤 모습으로 맞이 하는 것이 적절한지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만장일치에 가까운 찬성 의견으로 작년 국회를 통과되어, 이 중 호스피스·완화의료 제도는 올해 8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왜 제도가 정착되지 못했을까?

우리나라는 호스피스 진료가 강릉 갈바리의원에서 1965년 아시아 최초로 시작되었으나, 의료제도로 정착하지 못하고 종교단체의 봉사활동 수준으로 인식되어 왔다. 2000년대 정부가 호스피스사업을 일부 지원하고 수가시범사업도 실시했으나 의료제도로서 정착되지 못하였다. 정착하지 못한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한 이해부족이다. 법에서는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나, 이 영역에 대하여 한국의 의료제도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었다. 또 다른 요인은 이 문제가 연명의료결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보라매병원 사건, 김 할머니 사건 등에서 보여주었듯이, 연명의료 결정 원칙에 대하여 사회가 쉽게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제도를 계속 미루어왔다.

Received: March 2, 2017 Accepted: March 13, 2017

Corresponding author: Dae Seog Heo
E-mail: heo1013@snu.ac.kr

© Korean Medical Association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법만 시행되면 문제는 해결될 것인가?

인구의 고령화로 임종과정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면서 결국 법제화되었다. 왜냐하면, 매년 20여만 명의 만성질환자가 많은 고통을 받으며 사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품위 있는 죽음의 준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법임에도 후속법안의 미비로 또 다른 규제입법처럼 변질되고 있어 우려된다. 법 제정으로 인한 혼란은 지속적 식물상태 환자까지 연명의료중단 결정이 확대 적용되는 것을 우려하여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국한해 연명의료결정을 제한함으로써 발생하였다.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유보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호스피스·완화의료는 말기환자(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세계보건기구는 완화의료적 돌봄을 기존의 치료행위와 통합하여 말기에 이르기 전부터 조기에 제공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다. 선진국의 입법사례는 연명의료결정이나 호스피스·완화의료 결정이 말기에서 이루어지게끔 단일화되어 있어 혼란이 없다. 정부가 나서서 법안이 잘못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을 시행령·시행규칙을 통해 정비하지 않는다면, 기존 호스피스·완화의료마저도 위축될 것이다.

의료 집착

한국은 1977년 의료보험제도를 도입한 후, 1989년 전국민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되면서 저렴한 비용으로 쉽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임종장소가 가정에서 병원으로 이동하여 지금은 전 국민의 74.9%가 의료기관에서 사망하고 15.3%만 집에서 임종한다. 암환자의 경우 89.2%가 병원에서 임종하고 있다.

임종 장소로서 병원과 가정은 다른 환경이다. 병원의 경우, 환자나 그 가족은 끝없이 생명을 연장하기 위하여 의료서비스에 집착하고, 의료진들은 의료분쟁의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방어진료를 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이다. 회생가능

성이 없는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임종 전 마지막 2-3개월을 가족들과 생을 마무리하는 시간으로 보내기보다, 병원에서 인공호흡기와 같은 연명의료에 의존하여 중환자실에서 보내는 관행은 환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을 불행하게 만들고 있다. 이런 의료집착적 문화가 변하지 않고 법만 제정한다고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기는 어렵다.

어떻게 죽을 것인가?

모든 사람이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그동안 한국에서는 의료기술을 통해 죽음을 피하거나 최대한 연기할 수 있다는 생각이 지배해왔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죽음은 대형병원에서 쓸쓸하게 이루어졌다. 건강보험공단의 조사에 의하면, 국민의 16.3%만 병원에서 임종을 원하고 대부분 가정(57.2%)이나 호스피스(19.5%)에서 삶을 마무리하기를 원하고 있다. 그러나, 환자나 그 가족들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간병문제이다. 심한 통증과 같은 의료문제를 현재의 의료제도에서는 가정에서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가정에서 편한 임종을 맞이하기 원하는 대부분의 국민들의 여망이 수용되기 위해서는 환자가 집에 있어도 의료진들이 왕진을 통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 중심 의료체계도 함께 발전시켜야 한다. 첨단기술 중심의 의료서비스만 있으면 모든 의료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대도시의 대형병원으로 몰려가는 의료전달체계에서는 호스피스·완화의료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이다.

결론

한 인간으로서의 삶을 잘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지지 못하고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연명의료에 매달리는 한국인의 임종문화는 변해야 한다. 지금은 의료기관에서 대부분 사망하고 있지만, 다수의 국민들이 원하는 바와 같이 자신이 평생을 머물던 가정에서도 임종을 맞이할 수 있게 의료전달체계

가 개선되어야 한다. 말기환자들이 편안하고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기술중심으로 양적으로만 비대해진 기존 의료제도로는 한계가 있고, 호스피스·완화의료 제도의 정착과 확산이 필요하다.

찾아보기말: 호스피스; 완화의료; 연명의료; 말기; 임종

ORCID

Dae Seog Heo, <http://orcid.org/0000-0001-5221-173X>